



담배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으로 1492년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 섬에서 원주민으로부터 입수해 유럽에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럼버스가 귀국한 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담배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기호품으로 번져나갔다.

흡연자가 갑자기 급증하는데 놀라 금연령을 내린 나라들도 생겼다. 17세기 초 로마교황 우르바누스 8세는 신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사제들의 흡연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이유외에 담배에 의한 낭비와 화재예방을 이유로 금연령을 내린 나라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애연가가 많았던

나라는 터키였다는 기록이 있다. 성직자 사회에 끄연 반대자가 많아서 17세기 초에는 엄격한 금지령이 내려졌다. 당시 터키 황제 무라드 4세는 스스로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흡연자를 발견하는대로 가차없이 목을 쳤다는 끔찍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때 처형당한 흡연자가 무려 2만에서 3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당시 흡연자의 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광해군 때 우리나라에 전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면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 무오년이라 했으니 1618년이 된다. 담배가 유럽에 전해진 지 120여년이 지난 뒤 일본을 통해서 조선에 전래된 것이다.

담배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담배문예로서 영조때 명필 이광사의 연초서사시(煙草敘事詩)를 들 수 있는데, 이 시에는 담배를 반혼초(返魂草)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읊고 있다.

담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 기원설화에서 문인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생명을 되살리는 반혼초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전래된 신령스런 생명초라 하여 남령초(南靈草)라고도 했다. 또 연다(煙茶), 연주(煙酒)라고 부르기도 했고 서초(西草), 요초(妖草)로 표기하기도 했다.

조선조 말 추자 이유원이 쓴 임하필기에서는 담배를 담화귀(答花鬼)라는 낭만적인 이름으로 부른다고도 했다. 조선 중기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는 담배를 타바코라는 원음을 따서 담바고(談婆姑)라고 적고 있다.

흡연자를 참(斬)한 터키 황제

-담배에 얽힌 이야기-



이광호 KBS 해설위원

중국에서는 원나라때 기생 화선의 무덤에서 이 풀이 솟아나 사나이들을 홀렸다고 해서 담배에 중독된 사람을 '화선이 기동서방'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양에서도 처음에 담배 피우는 것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던 일화가 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시절 윌터 롤리 경은 담배를 피우다 하인으로 부터 물벼락을 맞고 말았다. 윌터 롤리 경이 담배를 내뿜자 연기가 그의 긴머리를 통해 올라왔고 이것을 본 하인은 분명히 자기 상전의 머리가 불에 탄다고 판단해 물을 떠다가 끼얹은 것이다.

양반들 행차편 연노(煙奴)가 따라가기도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만은 매우 너그러웠다고 한다. 남자도 피우고 여자도 피웠다. 양반도 피우고 상민도 피웠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문난 골초는 광해군과 인조때 명상인 장유로 알려지고 있다. 장유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던지 그의 장인인 충신 문충공 김상용이 요초(妖草, 담배)에 홀린 사위를 요병(妖病)에서 구해달라고 임금에게 상소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그 무렵 향간에서는 "미색(美色), 미주(美酒)는 참아도 미연(美煙)만은 못참겠네"라는 동요가 널리 나돌만큼 '화선이 기동서방'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말해주는 희한한 풍습이 있었다. 양반들 중에는 연노(煙奴)라 하여 담배 심부름을 전문으로 하는 종을 두기도 했었다. 그래서 행차때마다 상전이 피우는 담뱃대와 불을 켜는 부싯들, 심지어는 재떨이까지 흡연도구 일체를 연노가 준비하여 따라 다녔다. 양반집 여자들도 가마를 타고 외출할 때면 담배도구를 들고 뒤따르는 여자 종을 두었다고 한다.

국내서만 1년에 800억 개비 사라져

이처럼 우리 국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담배는 1년에 800억 개비나 연기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부고속도로를

6,600번이나 왕복하는 거리이며 또 지구와 달사이를 8번이나 왕복하는 거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400년만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62%로 흡연인구는 대략 천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흡연인구가 피워대는 담배를 돈으로 따지면 1년에 1조 5천억원이 연기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흡연자수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일본 담배산업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흡연자는 29.4%로 사상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같은 흡연자 감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요인이며 담배세 인상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치 확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청소년 흡연을 상생 대책 마련해야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요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외쳐대도 좀처럼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꺾덕도 하지 않다가 요즘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정부청사와 병원, 학교, 심지어 골프장에서까지 금연 공간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 금연구역 가운데 역 대합실과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어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인 흡연율이 최근 정점을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제는 연초에 끊는 금연결심이 연말에 다시 피우는 착삼삼일이 되지 않도록 금연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담배를 끊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77**